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요즘 스마트 기기로 건강 관리를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 적용된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역시 처음 들어 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동영상 제시) 앞서 보신 여러 사례에서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이 기술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은 PPG 센서를 이용해 심장 박동에 따른 맥박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림 1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PPG 센서는 빛을 내보내는 LED와 반사된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배웠던 빛의 특성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중 반응을 보며)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림 2 제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은 물질을 만나면 투과, 흡수, 산란, 반사 등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LED에서 나온 녹색 빛이 혈류에 도달하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빛의 양을 광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입니다. 이때 (그래프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부위의 혈류량이 많을 때는 빛의 흡수량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혈류량이 적을 때는 빛의 흡수량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녹색 빛을 내보낼까요? 일반적으로 빛은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데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붉은색을 띕니다. (그림 3 제시) 따라서 여기 색상환에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녹색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은 의료 분야 이외에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더 활발히 사용될 전망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제가 찾은 추가 자료들을 저의 개인 누리집에 올려놓을 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 분석
㉠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많음. ㉡ 빛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음. ㉢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왜 녹색인지 궁금해할 것임.
제재 분석
㉣ PPG 센서는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은 혈류량에 따른 빛의 반사량의 차이를 이용함.

- ① ㉠을 고려하여,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이 흔히 사용되는 일상의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지.
- ② ㉡을 고려하여, 빛이 물질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 2로 제시하여 청중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야지.
- ③ ㉢을 고려하여,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붉은색이 녹색과 보색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색상환을 그림 3으로 제시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해야지.
- ④ ㉣을 고려하여, 빛을 내보내는 LED와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도식을 그림 1로 제시하여 제재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지.
- ⑤ ㉤을 고려하여, 빛의 반사량이 측정 부위의 혈류량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제재의 특성을 쉽게 설명해야지.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생 1: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 정보 측정 원리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빛을 이용해 심장 박동에 따른 맥박을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
학생 2: 예전에 스마트 손목시계로 맥박을 측정했을 때 정확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는데, 발표자의 누리집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어.
학생 3: 광용적맥파 측정 기술이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군.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음을 밝히고 있군.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 중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군.

[4 ~ 7] (가)는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토의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 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해 ‘자서전 쓰기’ 봉사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자료는 다들 준비해 왔지? 지금부터 준비해 온 자료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보자.

학생 2: 나는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 우리 동네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 드리는 활동을 한 사례가 있더라. 이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께서 자신의 인생이 담긴 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뜻깊었지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도 소중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어.

학생 3: 그렇구나. 어르신께서 자서전을 갖게 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 우리도 열심히 해 보자. 나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복지관 이용률이 가장 높았어. 우리도 거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 어때?

학생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그러면 장소는 우리 지역 복지관으로 결정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자.

학생 2: 먼저 함께 활동할 어르신들을 모집해야 하잖아. 홍보 포스터를 복지관 알림판에 게시하자. 그리고 복지관에서 일주일 정도 활동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참가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학생 3: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선, 참가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세 번 정도 뵙고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녹음하자. 그 내용을 글로 옮겨서 자서전을 만드는 것은 어때?

학생 2: 그런데 자서전 분량이나 녹음 과정을 생각하면 다섯 번 정도는 뵙는 게 좋겠어. 그리고 자서전이 완성되면 어르신들의 가족분들도 모시고 다 함께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생 1: 좋은 의견들 고마워. 그러면 홍보 포스터를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히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고 출판 기념회를 하자는 거지? 그런데 이 활동은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 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3: 제안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활동 계획을 담고 봉사 활동의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2: 봉사 활동의 의미는 신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학생 1: 그럼, 제안서 작성을 위해 역할을 나눠 보자. 제안서 초고는 내가 작성할게. 너희들은 제안서에 추가할 만한 내용을 더 찾아 주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는 초고를 함께 살펴보고 수정해서 제안서를 완성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게.

학생 2, 3: 그래, 좋아.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봉사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써 드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이렇게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문화 단절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세대 간 문화 교류 기회가 부족하여 세대 간 갈등이 격정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세대 간의 갈등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 드리는 봉사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복지관 알림판에 게시하고, 복지관에서 일주일 정도 활동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참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어르신을 5회 정도 뵙고,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녹음한 뒤 글로 옮겨 자서전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서전이 ㉡ 완성되어지면 출판 기념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홍보 활동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자서전 출판 기념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도와주신다면, 어르신들은 인생을 담은 자서전뿐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찾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서전 쓰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인생을 ㉣ 돌이켜 회고하며 과거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봉사 활동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저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 (가)의 ‘학생 1’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활동을 언급하며 토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토의 참여자들에게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④ 토의 내용을 확인하며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안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②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근거를 들어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의 ‘학생 2’와 달리 [A]의 ‘학생 3’은 상대가 제시한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했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 ④ [A]와 [B]의 ‘학생 2’는 모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의 ‘학생 3’은 모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문단
○ 복지관에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2문단
○ 토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봉사 활동을 계획한 취지를 제시해야겠어. ①

3문단
○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 활동 계획을,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해야겠어. ②
○ 토의에서 언급한 요청 사항을 열거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제시해야겠어. ③

4문단
○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 활동의 의미를 활용하여 요청 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④
○ 토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봉사 활동의 긍정적 의미를 제시해야겠어. ⑤

5문단
○ 요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하며 마무리해야겠어.

7.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완성되면’으로 고쳐야겠어.
 - ③ ㉢: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그러므로’로 고쳐야겠어.
 - ④ ㉣: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돌이켜’를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로 고쳐야겠어.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 글의 주제: 청소년 칼슘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학생의 초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은 청소년기 뼈 건강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영양소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 성장이 저해되거나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칼슘은 체내 신경을 활성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의 원인으로는 먼저 칼슘 섭취의 중요성 및 칼슘 결핍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다. 청소년들은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임을 모르거나, 칼슘 부족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원인이 칼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칼슘 부족을 야기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칼슘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칼슘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칼슘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칼슘 섭취의 중요성과 칼슘 결핍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식습관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칼슘 섭취량이 충분한지 손쉽게 확인하고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주제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한다.
 - ② 작문 주제를 고려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제시한다.
 - ③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한다.
 - ④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기 쉽게 보여 주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⑤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부정적 반응과 이에 대한 반론을 미리 제시한다.

9.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㉔ 청소년의 영양소별 권장 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 비율

영양소	섭취 비율 (%)
나트륨	169.5
철	83.5
칼슘	58.9

㉕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항목	안다	모른다
뼈 성장 저해	71%	29%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34%	66%
감정 조절 어려움	10%	90%

[자료 2] 신문 기사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은 편인데, 카페인 섭취량까지 크게 증가한다면 칼슘 부족이 심해져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칼슘과 같은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영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① [자료 1-㉔]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칼슘 섭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의 사례로 제시해야겠군.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칼슘 섭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예시로 제시해야겠군.
- ④ [자료 1-㉔]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나트륨을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 주어, 잘못된 식습관이 칼슘 부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겠군.
- ⑤ [자료 1-㉔]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칼슘 결핍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영양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군.

10. <조건>에 따라 ㉠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 글에 제시된 칼슘 결핍의 문제점을 드러낼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충분한 칼슘 섭취, 청소년 뼈 건강의 열쇠입니다.
- ② 나도 모르게 발끈한 내 마음, 범인은 칼슘 부족입니다.
- ③ 칼슘이 결핍되면 당신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 ④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는 칼슘으로 내 건강을 지키자.
- ⑤ 청소년기 건강의 만병통치약, 꾸준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르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서술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서술어로 쓰인 단어가 가지는 선택 자질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서술어가 주어만을 필요로 하면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한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면 ‘세 자리 서술어’로 분류한다.

그런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사 ‘멈추다’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동차가 멈추다.’에서와 같이 한 자리 서술어이고,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버지가 자동차를 멈추다.’에서와 같이 두 자리 서술어이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은 경우에 따라 특정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특성을 갖는데 이를 ‘선택 자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언이 선택 자질에 의해 특정 단어를 선택하여 결합하는 현상을 ‘선택 제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먹다’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어 보낸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언은 한정된다. 즉 주어로는 입과 배라는 신체 기관을 지닌 생물만을, 목적어로는 음식만을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밥을 먹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지만 ‘바위가 밥을 먹다.’와 ‘아이가 바위를 먹다.’는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어겨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11.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 ②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 ③ 이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다.
- ④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
- 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탐구 과제]
다음 [탐구 자료]에 나타난 서술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탐구 자료]

살다 「동사」
「1」 생명을 지니고 있다.
예 그 사람들은 백 살까지 ㉠ 살았다.
「2」 [...에/에서]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예 그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 산다.
「3」 [...을]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예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살았다.
「4」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잘 ㉣ 산다.
그 부부는 오순도순 잘 ㉤ 산다.

[탐구 결과]

[A]

- ① ㉠은 「1」의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에 ‘생명을 지닌 존재’만을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 ② ㉡와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개수는 동일하겠군.
- ③ ㉡와 ㉣은 각각 「2」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언은 한정되었을 것이다.
- ④ ㉣은 「3」의 의미를 고려할 때,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 자질을 갖겠군.
- ⑤ ㉤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과 같겠군.

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로 뒤에 오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해 주는 성상 관형사,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해 주는 지시 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ㄱ. 이 상점, 두 곳에서는 현 물건을 판다.
ㄴ. 우리 다섯이 새로 산 구슬을 나눠 가지자.
ㄷ. 나는 오늘 어머니께 드릴 새 옷 한 벌을 샀다.

- ① ㄱ에서 ‘이’는 ‘상점’을 꾸며 주는 지시 관형사이다.
- ② ㄱ에서 ‘현’은 체언인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 준다.
- ③ ㄴ의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니 관형사가 아니다.
- ④ ㄱ의 ‘두’와 ㄷ의 ‘한’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 ⑤ ㄴ의 ‘새로’와 ㄷ의 ‘새’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 관형사이다.

14.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활동지이다.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지

1. 학습 자료
ㄱ. 목화숨[모과숨] ㄴ. 흙덩이[흑명이] ㄷ. 새벽이슬[새빙니슬]

2. 학습 활동
ㄱ~ㄷ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답변			
	ㄱ	ㄴ	ㄷ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	○	○ ㉠
기존에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	○	× ㉡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	×	×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	×	○ ㉣
음운 변동이 총 2번 일어났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였다.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더-’를 사용하였고, 동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선어말어미를 쓰지 않기도 했다.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의 경우 ‘-느-’를 사용하였고, 형용사의 경우 선어말어미를 쓰지 않았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리-’를 사용하였다.

<보기 2>

㉠ 分明(분명)히 너드려 닐으리라 [분명하게 너한테 말하겠다.]
㉡ 네 이제 또 묻는다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나리 흐마 西(서)의 가니 어엿브다
[날이 벌써 서쪽으로 저무니 불쌍하다.]
㉣ 막을 사름이 우디 아니리 업더라
[마을 사람들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 네 겨집 그려 가던다 [네가 아내를 그리워해서 갔느냐?]

- ① ㉠을 보니 동사의 경우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을 보니 동사의 경우 ‘-느-’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을 보니 형용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말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을 보니 형용사의 경우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을 보니 동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말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드러난 말로, 세계를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라톤에게 가시적 세계는 우리의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실재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이다. 반면 비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로, 이 세계는 가시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에이도론’이라 부르며, 에이도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한다.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이다. 반면 판타스마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이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다.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의 사본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이비라는 의미로 ‘시물라크르’라고 부르며 예술이 시물라크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재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들뢰즈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과 사본, 시물라크르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 짓고 시물라크르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시물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들뢰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시물라크르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 원본과 사본의 시물라크르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은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물라크르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물라크르가 실재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다. 이렇듯 시물라크르를 긍정하는 들뢰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㉞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라고 선언한다.

(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는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 말한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불과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초과실재**’라 부른다. 이 초과실재가 바로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물라크르이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

미지나, 실재한다고 믿는 상품 광고 속 캐릭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물라시옹 현상’이라 부르며, 시물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재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시물라시옹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시물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재를 대신한다. 우리가 실재보다 시물라크르를 더 실재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은 ‘내파’하여 사라진다. 이때 내파란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된 시물라크르들이 원래 실재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 실재와 시물라크르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드리야르는 시물라시옹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든다.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 사이의 경계는 붕괴되었고,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재적이고 우월한 초과실재가 되었다.

이러한 시물라시옹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보드리야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물라시옹 현상에 의해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잃고 내파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된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현상을 ‘**초미학**’이라 부르며, ㉡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시물라크르가 지닌 오류를 증명하는 과정을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시물라크르가 사라지는 현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물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물라크르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물라크르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새로운 예술관을 모색하고 있다.

17. (가)의 가시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적 세계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다.
- ② 가시적 세계는 눈으로 지각 가능한 현실 세계이다.
- ③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은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된다.
- ④ 가시적 세계는 가시적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한 세계이다.
- ⑤ 가시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구분된다.

※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8번과 19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자료 1]

음료 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첫 캐릭터를 그렸지만, 음료 회사는 첫 캐릭터에서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고, 음료 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하여 방영했다. 이후 최종 캐릭터는 설문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

[자료 2]

가구 장인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 직접 그린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다. 화가 C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 2'를 그린 후, 다시 이를 변형한 '의자 3'을 그려 전시했다.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를 '의자 0'으로 전시했고,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다.

1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들뢰즈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
	플라톤과 달리 들뢰즈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실제로서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
	들뢰즈와 달리 보드리야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재를 대신한다고 여길 것이다. ㉢
[자료 2]	보드리야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 ㉣
	플라톤과 달리 들뢰즈는 '의자 3'이 '의자 1'의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군.
- ②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버 기술로 그려진 것들이라고 보겠군.
- ③ 들뢰즈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해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해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모두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군.
- ④ 보드리야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과실재가,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에 초미학 상태가 되었다고 보겠군.
- ⑤ 보드리야르는 [자료 1]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 간의 경계가, [자료 2]의 각국 미술관에서는 일상 사물과 예술 작품 간의 경계가 내파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겠군.

20. ㉡와 ㉣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예술 작품이 사물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에는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미적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 ② ㉡에는 예술 작품을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수용이, ㉣에는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③ ㉡에는 반복이 실현된 예술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에는 미적인 것과 비미적인 것의 변별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술 작품을 주체의 판단에서 독립된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에는 예술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에는 증식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21.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사람들은 흔히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 ② 청중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 ③ 험철 길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 ④ 경비 아저씨에게 아이가 오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해 두었다.
- ⑤ 동생에게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은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약품 침전 방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 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를 밀어내는 ㉡ 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게 된다.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물의 탁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염과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로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우선 전기적 중화 작용에서는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양(+) 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 화합물이 음(-) 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하면 콜로이드 입자 간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안정화되고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다가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응집하여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적 중화 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 물을 빠르게 젖는 급속 교반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교 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 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록을 더 크게 만든다.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반데르발스 힘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 이러한 가교 작용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 주고,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저어 주어야 한다. 이를 완속 교반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 전하를 띠게 된다. 이를 전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진다.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 화합

물은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데 이를 체 거름 현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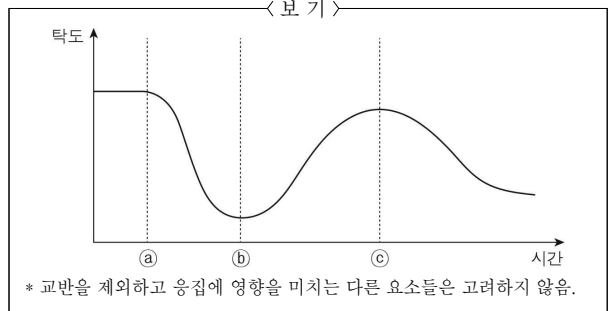
2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 ②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 화학 약품을 이용한다.
- ③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킬 수 있다.
- ④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록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면 체 거름 현상이 나타난다.
- ⑤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입자가 일정 거리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은 입자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은 입자가 띠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24. <보기>는 응집제의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에서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하겠군.
- ②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여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겠군.
- ③ a와 b 사이에서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 작용으로 형성된 플록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b와 c 사이에서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a에서 주입된 응집제가 전기적 중화 작용과 가교 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군.
- ⑤ c 이후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 침전했기 때문이겠군.

2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는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된 상태에서 부유한다. 응집제를 주입하면 (㉡)이 일어나고 콜로이드 입자는 (㉢)된다.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면 (㉣)이 나타난다.

- | | | | | |
|---|------|--------|------|--------|
| | ㉠ | ㉡ | ㉢ | ㉣ |
| ① | 안정화 | 전하 역전 | 불안정화 | 전기적 중화 |
| ② | 불안정화 | 전기적 중화 | 안정화 | 전하 역전 |
| ③ | 안정화 | 전기적 중화 | 불안정화 | 전하 역전 |
| ④ | 불안정화 | 전하 역전 | 안정화 | 전기적 중화 |
| ⑤ | 안정화 | 전기적 중화 | 불안정화 | 전기적 중화 |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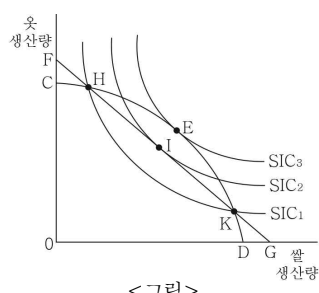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신이 ㉠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무차별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 준다.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후생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으로,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 적용하고, 낮은 효용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가능곡선 CD와 사회무차별곡선(SIC)을 통해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의 생산가능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함을, 곡선의 안쪽은 생산이 가능



<그림>

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이때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E 지점이 최적인데, 만약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가능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SIC₁과 SIC₂의 원점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SIC₁ 위에 있는 H 지점보다 SIC₂ 위에 있는 I 지점의 사회후생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하에서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

26.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차선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②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③ 립시와 랭카스터가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 ④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7. 사회무차별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무차별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후생수준을 나타낸다.
- ② 사회무차별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모양이다.
- ③ 사회무차별곡선을 통해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회무차별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수준을 보여준다.
- ⑤ 사회무차별곡선에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8. 차선의 이론을 통해 ㉣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②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효용수준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 ③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④ 낮은 효용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별 주체의 효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9. 다음은 윗글을 읽고 <그림>에 대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동아리 회장: 오늘 살펴본 경제 자료 속 그래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자.

부원 1: 나는 H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부원 2: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부원 3: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4: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5: SIC₃은 SIC₁과 SIC₂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 ① 부원 1의 생각 ② 부원 2의 생각
- ③ 부원 3의 생각 ④ 부원 4의 생각
- ⑤ 부원 5의 생각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 ② ㉡: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③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④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 ⑤ ㉤: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죽창(竹窓)의 병(病)이 깊고 포금(布衾)이 냉낙(冷落)한대*
 돌미나리 흠뻑으로 석찬(夕饌)을 흐자터니
 상 위에 그저 노코 님 생각 흐는 뜻은
 아리싸온 님의 거동(舉動) 친(親) 흔적 없진마는
 불관(不關)한*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월노(月老)의 노(繩)* 홀 밧가 연분(緣分)도 하 중(重)하고
 조물(造物)이 새오던가 박명(薄命)* 흠도 그지업다
 (중략)
 이팔(二八) 방년(芳年)이 손뎌아 다드르니
 십니(十里) 벽도화(碧桃花)의 구름이 머흔 속의
 내 소식 님 모르고 ㉠ 님의 집 나 모를 제
 세스(世事)의 마(魔)히 고히* 홍안(紅顏)이 복(福)이 업서
 하르밤 놀난 우레 풍우(風雨)조차 섧거치니
 들알피 심근 규화(葵花) 못피여 시들거다
 흐 고기 흐린 물이 윈 못을 더러인다
 형극(荊棘)의 썩던 불이 난혜총(蘭蕙叢)의 붓터오니*
 내 얼굴 고은 줄을 님이 었디 알으시고
 화공(畫工)의 붓긋호로 그려 내여 올닐 손가
 연년(延年)의 가곡(歌曲)으로 띄어다가 도도올가
 대가티 고든 절(節)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
 - 이공익, 「죽창곡(竹窓曲)」 -

- * 포금이 냉낙한대: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 * 불관한: 관계없는.
- * 월노의 노: 남녀의 인연을 맺어 주는 끈.
- * 박명: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
- * 세스의 마히 고히: 세상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
- * 형극의 썩던 불이 난혜총의 붓터오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혜초 무더기에 붙으니.

(나)

숭정(崇禎)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 운(雲)을 시켜 마구간 바닥에 매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 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내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내가 그릴 수 없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매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말이며,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빼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릴 수는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자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말아.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 놓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 말은 이에 귀를 쫓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컨대,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백 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쪽으로 사방의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집에는 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두어 없었고, 광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으나, 아침에는 된 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 십 몇 백리를 짐을 싣고 달리며 짐을 싣고 뛰며 읊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도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중략)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 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세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막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애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이에 실의(失意)하여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옛날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管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어 노비 운(雲)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 당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다.

- 홍우원, 「노마설(老馬說)」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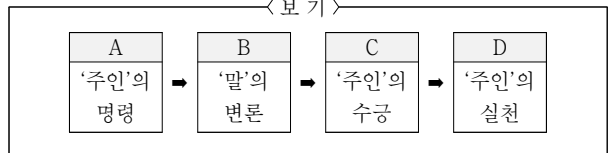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입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입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입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혼쫓으로 석찬을 하자터니’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군.
- ② ‘님의 거동 친 흔적 업전마는’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조물이 새오던가’와 ‘세사의 마허 고하’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뜰알피 심근 규화 못피여 시들거다’를 통해 입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대가티 고든 절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을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겠군.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은 ‘나’와 ‘님’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역할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나’와 ‘님’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은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나’와 ‘님’의 현실 인식이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말’과 ‘주인’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4. <보기>는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여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에서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③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 ④ C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번복하여 노비에게 ‘말’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어쩡니까? 모리”를 압니까? 글을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
 사십이나 되어 보이는 주인은 기름때가 묻은 비행사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고무신짝을 끌었다. 이때껏 부엌에서 빈대떡을 지지다가 내다보던 길에 알은체를 한 모양이다.
 “빈대떡은 병문 친구 계급에서 해방이 되어 당신 같은 문화인 덕에 출세를 했으나 근대 조선의 신문화를 돼지비계에 저저 내서야 될 말요.”
 영감은 미소를 띠어 보이며 술잔을 들어 마신다. 영감은 이 사람의 호(號)가 남원(南園)이란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의 건망증에 짜증이 날 지경이나 어쨌든 십여 년 전에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하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영감은 너무나 의외인 데에 어이가 없고 가엾은 생각이 났다. 잔을 비어 술을 권하니 주인은 손을 내두르고 주전자를 들어 따라 주며,
 “선생님이 이런 세상에 양식집 찾집을 내놓고 ㉠ 빈대떡집에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 웃는다. 주인의 눈에는 미국 갔다 온 이 하이칼라 노신사가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았는 것이 가엾어 보였다.
 “응! 내가 이렇게 영락하거나, 남원이 **붓대를 던지고** 녹두를 갈고 **지짐을 부치기**나 가엾긴 일반요마는 비프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본 지도 벌써 찍 오랬소.”
 영감은 아까는 다리를 쉬어 가려고 찾집을 찾기도 보았고, 또 해방 전후 한때는 식당이나 찾집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근자는 발을 툭 끊었다.
 “그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다니? 사시미가 싫듯이 비프스틱도 싫어졌고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구려!”
 하고 김관식 영감은 커다랗게 절절 웃는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해방 전에는 친일을 하다 해방 직후에는 우익 청년단을 이끄는 재산가 박종렬은 한 청년과 함께 김관식을 찾아온다.
 “책두 인젠 그만 보고 차차 속계로 나와 보는 게 어머신지? 이런 세상에 그래 책 볼 경향이 있더라 말요?”
 박종렬 영감은 서고에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으로 주객 세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한 틈만 남기고, 책으로 꼭 찬 방안을 둘러다 본다. 이 영감은 김관식을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면서도 가끔 와서 이 ㉡ **서재에** 들어와 앉으면 어쩡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세상이니 책이나 보고 들어앉았는 것 아닌가?”
 주인은 냉소를 한다.
 “㉢ **그래두 선생님 같은신 선배께서 제일선에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앞에 앉은 청년도 이런 소리를 하며 이름도 모를 양서며 한서가 그득 찬 사책을 둘러본다. 두 주먹을 무릎에 짚고 어깨를 딱 빼고 완만스럽게 앉았기는 하나, 길길이 쌓인 책을 보고는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눈치다. 그러나 영감은 처음부터 안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꼬웁게 보여서 말대꾸도 아니 해 준다.
 “실상은 영감을 서재에서 거리로 끌어내려고 오늘 이렇게 온 건데 나서 보지 않으려나?”
 청년이 덤덤히 앉았는 것을 보고 박종렬 영감이 한 마디 거든다.
 “거리에야 늘 나가네. 오늘도 나가 보았지만 눈에 보이느니,

눈에 들어가느니 먼지뿐이데! **쓰레기통** 속을 헤매느니보다는 이 **한 칸 방**이 내게는 더없는 **선경**이거든!”
 “그야 진세(塵世) 아닌가! ……자 그는 그러라 하고 오래간만에 나가 보지 않으려나? 쓰레기통 속 아닌 선경, 지상낙원을 구경시켜 줘세.”
 하고 박 영감은 술을 먹으러 가자고 권한다.
 “그만두겠네. 지금 오다가 다리가 하두 아프기에 빈대떡집에 들어가서 술 석 잔을 마시고 보니 내 세상은 게 있는 듯싶데.”
 “하하하 영감두 인제는 늙었군! 빈대떡집에 들어가다니.”
 박종렬 영감의 눈에는 늙은 친구가 가엾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 역시 처음에는 좀 군돈스런 생각도 들테마는 꽃 같은 색시를 데린 청년이 요기를 하고 앉았고 양복신사가 열좌한 것을 보니 조선 사람 정도에 꼭 알맞은 그럴이요 사교장이라고 하겠네.”
 “㉣ **그두 그렇죠.**”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들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 마디 장단을 맞추고 열린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
 “오늘 이렇게 비러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의 힘까지 빌어야 한다는 걸 보니 신통치 않은 사업이겠구려.”
 “㉤ **아니올시다. 신통한 일하기에 선생님께서 출마하여 주십시오는 것 아닙니까?**”
 청년은 이 영감의 말이 겹사 비슷하면서도 자기를 흠뻑리고 면박한 것이 불쾌하긴마는 지긋이 참았다.
 “출마라니 아직 **UN단도** 오기 전에 입후보를 하란 말요?”
 “영감 입후보할 야심은 있는 게로구려? 그러면 됐소!”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던 박종렬 영감이, 무에 되었다는지 말을 가로막으며 나선다.
 “별 게 아니라, 이번에 **XX당 성북지구분회**가 조직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될 수 있으면 영감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물론인데 나가보구려.”
 알고 보니 가당치도 않은 의논이다.
 “온 **당치 않은** 소리! 어느 당이고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아랑곳이 있던 말요?”
 주인 영감은 못 들을 소리나 들은 듯이 펄쩍 뛰었다.
 “㉥ **분회장이 싫으시면 고문도 좋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XX청년단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빠서 분회장을 겸무할 수 없기에 김관식 영감에게 사양을 하자는 것이나 정 못하겠거든 고문으로라도 이름을 걸어 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성북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 이러한 청을 하는 것이라 한다.
 “내게는 과분한 천망이나 나는 원체 정치를 모르고 그런 데 취미가 없는 사람이니가 다시는 말씀도 마슈.”
 김관식 영감은 이러한 이야기는 두 번도 듣기 싫었다. 그는 고사하고 이 청년이 초면에 왜 그리 주짜를 빼고 자기를 위협이나 하러 온 듯싶이 버티나 하였더니 청년단장이란 말에 인제야 알겠다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갑갑한 방 속에 들어앉았느니 소일 삼아 나가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지 않나.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따루 있던가?”
 박종렬 영감이 **또 권해** 본다.
 “이 방이 영감 눈에는 갑갑해 보이겠지만 내게는 선경이라니

까! 죽은 뒤의 명정감도 소용없고 술 석 잔과 이 방 한 칸이면 부족할 게 없어! 허허허.”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나 퇴영적 퇴폐적이 아닙니까? ㉠ 삼천만이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이면야 큰일 아닙니까?”

청년이 쇠하여 보인다.

“응, 퇴폐, 퇴영은 안 되겠지만 석 잔 술과 한 칸 방에 숨으려는 것을 퇴폐, 퇴영이라면, 서른 잔 술과 열 칸 방에 향락과 권세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은 구국애민의 정치도(政治道)란 거랍디까?”

- 염상섭, 「효풍」 -

*모리: 도덕과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정한 이익만을 꾀함.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자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②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로 설정된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6. ‘김관식’을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공간이고, ㉡은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공간이다.
- ② ㉠은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공간이고, ㉡은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유사한 처지의 타인에게 동정을 받는 공간이고, ㉡은 상반된 처지의 타인에게 제안을 받는 공간이다.
- ④ ㉠과 ㉡ 모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공간이다.
- ⑤ ㉠과 ㉡ 모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공간이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를 평가하는 말을 담아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 상대를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화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생각을 반박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④ ㉣: 상대의 반응을 보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 상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의 가치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를 사는 인물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 부도덕한 인물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은둔자적인 삶을 살지만,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혼탁한 현실을 기회로 여겨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 노력한다.

- 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며 활약하다 ‘붓대를 던지’고 ‘지검을 부치’는 모습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인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신경’과 ‘쓰레기통’에 빗대어 ‘한 칸 방’의 안과 밖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모습에서 인물이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사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UN단도 오기 전’에 ‘××당 성북지구분회’를 조직하려는 모습에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나 함께 할 것을 ‘또 권해’보는 모습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어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없이 저 버렸다.

차운 한겨울에도
㉡ 외롭게 햇살은
청석(靑石) 섬돌 위에서
낮잠을 졸다 깼다.

할일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 김춘수, 「부제」 -

(나)

다 왔다.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루,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 멈추고 ㉢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얇은 서리 가운 입던 꽃들 사라지고
땅에 꽂아논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얹어진다.
㉤ 아직 햇빛이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푹푹해졌다.

더 푹푹해지면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등치들을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짝 말려버린 펜찰은 삶도 있었다니!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
다 나았소이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 황동규, 「삶을 살아낸다는 건」 -

3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내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나)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에 현상이 나타났음을 드러낸다.
- ② ㉡은 대상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홀로인 상태임을 표현한다.
- ③ ㉢은 대상의 행위가 혼자만의 행동이 아님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 ⑤ ㉤은 대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인은 관념적 주제를 자연 현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형상화한다. (가)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제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나)에서는 삶의 의미를,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생의 감각과 자연과 교감하며 깨달은 일상적인 경험을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사람들이' '꿈결같이' '살다 죽'는 모습에서 존재의 유한함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바람'이 '흔들'면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우는 모습에서 자연 현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눈인사하듯 푹푹해'진 '피라칸사 열매'가 '더 푹푹해지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깨달음을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햇살'이 '낮잠을 졸다' 사라지는 모습과, (나)에서 '바삭 말'려버린 '나무'의 상태를 '펜찰은 삶'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자연 현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는 '저 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존을, (나)에서 '마른기침 소리'를 내던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등치'를 내놓는 모습에서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천상의 선관이 두꺼비의 모습으로 지상으로 쫓겨나 박 판서의 셋째 딸과 혼인한다. 장인의 회갑이 다가오자 동서들은 두꺼비를 빼고 사냥을 가려고 하지만, 두꺼비도 장인을 졸라서 결국 사냥을 간다.

짐을 지고 돌아오는 ㉠ 길에 두 동서를 만났다. 동서들이 두꺼비는 돌아보지도 아니 하였으나, 하인 셋이 무겁게 지고 오는 장끼, 까투리를 보고 놀랐다. 하인들이

“두꺼비 서방님이 잡은 것이라.”

하였다. 두 동서는 장끼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두꺼비가

“자네들은 얼마나 잡았는고?”

하면서 조롱하거늘, 두 동서가 그제야 두꺼비에게 비는 듯이, “자네는 사냥을 못하여도 관계없거니와 우리는 책망이 있을 것이니, 자네 사냥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겠나?”

라고 하였다. 두꺼비가 말하기를

“내 동서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그러나 나는 본시 그런 것을 쫓을 때 그 사람의 등에 도장을 찍으니, 동서들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오.”

하였다. 그래도 두 사람이 사냥한 것을 욕심내니, 두꺼비가 쾌히 허락하며, 필낭에서 필묵을 꺼내어 벼루 뚜껑을 벗기고 먹을 묻혀서 등에다 ㉡ 도장을 찍고 종에게 분부하되

“사냥한 짐승들을 다 주어라.”

하였다. 하인들이 두꺼비의 명대로 잡은 것을 다 주니, 동서와 여러 하인이 기뻐하였다. 사냥한 짐을 지고 들어가니 집안사람들과 장인과 장모가 칭찬하였다. 뒤늦게 두꺼비가 빈손으로 턱을 덜렁거리며 헐떡헐떡 들어오니, 집안사람들과 노복들이 이르기를 “저런 것이 사냥을 어찌 한단 말인가.” 하더라.

그러저럭 회갑 날이 이르러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상중하 남녀노소 없이 모였는지라. 만사위와 들째사위도 참석하여 사수병풍이며 빛나는 장막 천으로 햇볕을 가리고, 맑고 아름다운 색채를 띄우는 듯한, 춤과 노래, 양금, 거문고를 희롱하며 유유히 좌우로 펼치며 놀았다. 이러한 경사에 두꺼비 내외는 못 오게 하였으니, 그네들이 두꺼비를 매우 미워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두꺼비가 분하여 진언을 외워 그 허물을 벗으니, 하늘에서 청모시 한 필과 하인 열 셋이 내려왔다. 살펴보니 층층다리 무지개 안장에 황금 등자를 걸었으며, 하인들이 치장한 것을 보니 슬렁슬렁 병거지에 열십자 끈을 넓게 달고 흑띠와 복끈을 둘러메고 옥모방망이 등을 거꾸로 잡고 두꺼비에게 문안하였다. 두꺼비 또한 어느 새 선관의 의복을 제대로 갖추었다. 이리하여 ㉢ 윗문을 나오니 누라서 두꺼비인 줄 알리오.

두꺼비가 곧바로 잔치하는 ㉣ 집 사랑에 들어가 대감께 뵈오니, 대감과 좌중이 모두 그 풍채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대감이 말하기를

“어디에 계시며 누 닮 사람입니까?” 하니, 두꺼비가 답하기를 “소생은 평안도 송천부에 사는데, 대대로 부린 종 두 놈을 잃고 찾지 못하였더니, 소문을 들으니 이 닮에 왔다 하기로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중략)

두 동서를 가리키며,

“저 놈들이 나의 종이로소이다.”

하였다. 대감이 기가 막혀 옷을 벗기고 보니 과연 그 표가 완전한지라. 두꺼비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저 두 놈을 잡아 결박하라.”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하인이 달려들어 거행하자 두꺼비가 호령을 더욱 추상같이 하는데, 누라서 능히 그것을 말리리오? 두꺼비가 호령하기를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하다고 상전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양반에게 장가를 들어 제법 사랑에 앉았다만 어찌 망녕치 아니하리오?”

또 호령하기를

“종놈을 매달아 항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하였다.

안에서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기를

“팔자도 무상하여 딸 하나는 두꺼비 사위를 보고, 딸 둘은 남의 종놈 사위를 보게 되었나!”

하였다. 잔치는 성대하나 분위기는 초상난 집 같더라.

이때 두 사위가 장인에게 아뢰기를

“저 사람에게서 한때 도장이나 표를 받은 일은 따로 없고, 우리들이 지난날 사냥 갔을 때에 두꺼비 동서를 만나서 이리이리 하였습시다.”

라고 자백하였다. 놀란 대감이 급히 하인을 시켜 두꺼비 사위를 데려오라 하였다. 그러나 곳곳을 찾아도 없는지라. 대감에게 찾지 못함을 아뢰니 대감이 더욱 놀라서 하인을 모두 풀어 사방으로 찾는데, 두꺼비는 벌써 형체를 변형하고 있었으니 두꺼비를 어디에 가서 찾으리오?

그때서야 두꺼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감께 절하며

“대감은 너무 근심 마십시오. 제가 두꺼비 사위로소이다.”

하였다. 대감이 깜짝 놀라며 반기기를

“두꺼비 사위가 그대인가? 무슨 연고로 두꺼비 허물을 쓰고 사람을 그다지 속이느냐?”

두꺼비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소생은 본디 두꺼비의 모양이 아니라 천상에서 비를 내려 주는 선관이었던니, 인간에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씌워 인간에 내쳐서 어부 노인에게 수양자가 되도록 하였습시다. 대감의 사위가 된 것은 다툼이 아니라, 대감께서 젊은 시절 벼슬할 때에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인 죄로 두꺼비 사위를 접지하고 자손을 없게 한 것입니다.”

하니, 그제야 대감이 즐겁기도 하고 한편 슬프기도 한 마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부인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며 기뻐하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저러한 인물로 그 흉한 허물을 쓰고 있었던가! 내 딸 월성은 벌써 알았을 것이건만 그런 말을 추호도 하지 않았으니, 저런 줄 누 알았으리요?” 하며 대단히 기뻐하였다.

“저렇게나 좋은 풍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리오.”

하고 반기며 좋아하니, 누 아니 부러워하리오?

선관이 두 동서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나를 너무 업신여긴 죄로 옥을 보였노라.”

하였다. 뒤이어 선관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올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을 간수해 두면 부귀할 것이니 잘 간수하소서.”

하고는 곧 소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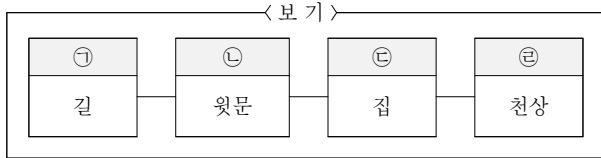
얼마 지나지 않아 뇌성벽력이 진동하면서 천상에서 ㉤ 옥으로 된 가가가 내려오거늘 선관이 장인장모에게

“정히 섭섭하오나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 천상으로 올라가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하였다.

- 작자 미상, 「두껍전」 -

42.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섬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실 세대와 자연물의 대비를 통해 당대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43.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공간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두꺼비는 동서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 ② ㉡의 안쪽에서 분노한 두꺼비는 하인들을 불러 ㉠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책을 하고 있다.
- ③ ㉡에서 ㉢으로 이동한 두꺼비를, 대감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에서 부인은 두꺼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 ⑤ ㉣에서 ㉣로 가기 전에 두꺼비는 장인에게 간직할 물건을 주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은 인물이 벌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은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다.
 - ③ ㉠은 과거의 부귀했던 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은 현재의 곤궁한 처지를 밝히는 수단이다.
 - ④ ㉠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고, ㉣은 위험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다.
 - ⑤ ㉠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천상에서 쫓겨난 인물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적장 모티프와 사위가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위 박대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초월적 존재에게 불품없는 외양을 부여받은 주인공은 지상에서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등의 박대를 당하며 속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정체를 숨긴 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주인공은 정체를 밝힌 후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 ①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하늘에서 하인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숨기고 있었던 주인공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부인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며 두꺼비의 외양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회갑 날 두꺼비 내외를 못 오게 한 장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동서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것을 주는 장면에서 속죄를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